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식의 똥 냄새 앞에서

작자 미상

제 아들녀석이 이런 편지를 써 보내왔습니다.
 "아빠, 예준입니다. 잘 지내셨음(습)니까? 이제 볼 날이 얼마 안남았네요. 오늘은 교회 갈다(갔다) 와서 친구집에서 놀다 왔음(습)니다. 내일은 교회 갈다(갔다) 와서 과외가 있고요. 광태 선생님과 하는 첫 날입니다.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빠가 기다릴까봐 후다닥 쓰고 있(습)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바쁠거 갔네요. final exam week이라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전 이만 싸기 전에 가겠음(습)니다. ?(-_-)? 쌤~"

얼마나 급했으면 한번도 빠지지 않던 편지 갈무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Never ever give up"까지 빼 먹은 편지였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건지 큰 일 보는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녀석이 변이 아주 굵습니다. 굵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큰지 변기가 막혀 몇 차례나 제가 똥처리(분해)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참고 참았다 뽀아 내거든요. 참 이상한 것은 자식놈의 똥은 굵어도 예쁘기만 하고 냄새도 안 난단 말입니다. 제 코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 것은 부엌의 음식 냄새는 웅케도 잘 맡는 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틀니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입 냄새는 3미터 전방에서도 나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놈의 똥 냄새는 달고 어머니 입에서의 냄새는 쓰기만 한 이을배반을 놓고 말입니다. 저희 집 둘째는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 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냄새도 달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 코를 비틀어 주시던지요."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8월 21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정이 가는 사람

김성국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조금은 당당한 사람보다 주님만 생각하면 부끄러워 숨고 싶다는 사람이 더 정이 갑니다

주님이 먹고 입혀 주실 거라며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보다 돈 앞에 허둥대며 살았던 한주간이 부끄러워 현금 드리는 손조차 길게 뻗지 못하는 마음에 더 정이 갑니다.

많은 성경공부로 제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남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보다 고된 일하다 예배에 나와 피곤에 지쳐 조는 사람에게 더 정이 갑니다.

새벽, 철야, 금식기도로 무장되었다며 믿음끼를 줄줄 흘리는 사람보다 자기는 가족만 위해 기도하는 폭 좁은 믿음이라며 늘 죄스러워하는 사람이 더 정이 갑니다.

찬양중에 뜨거운 가슴이 차오르고 깊은 은혜로 영광 돌리다가도 가끔은 설운도, 태진아, 송대관의 트롯토 박자따라 흥얼거리짐에 깜짝 놀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고 사람냄새 풍기는 그런 사람이 더 정이 갑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 스쳐 지나며 살아 온 중에 구름 위 천사처럼 산다고 여기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땅 디딘 발에 흙 묻힌 채 하늘 향해 얼굴 들 줄 아는 그런 사람과 깊은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위에
나의 생명을 설계하라

◀인품따라 행하기▶

자신을 발견하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땀 그랬지▶ 백금녀를 아시나요?

"가갈갈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멋어도 고뿌 없이는 못마십니다" 오늘 랩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서영춘 씨와 콧비를 이룬 똥똥한 코메디언 백금녀. 당시로는 보기드문 똥똥한 몸매를 지닌 여성으로 코메디를 한다는 것부터가 흥미거리였습니다. 얼마후에는 거기에 못지않은 "오천평"이라는 코메디언이 나와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고춘자, 이순주, 김희자, 권귀옥, 배연정....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여의치 않던 시절인데도 웃음을 주던 이들 여성 코메디언들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7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42 (마 5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42장	
기 도 Pray		이광희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61:1-3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믿으면 어떻게 행복한가?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8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8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7	노은숙	민병구	4구역
14	박일영	박미숙	5구역
21	이광희	박덕철	학생부
28	이규임	박병민	6구역

◆8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7	구역예배(12)
14	광복기념주일 믿음의어머니기도회(16)
21	친교주일 식사친교
28	이삭줍기주일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4시

- 1.교우소식
 <이사> 정성호, 박하림 집사 ☎410-1683. 54 Aberdeen Rd.Castor Bay
 <등록> *고명분 성도(1선, 8구역) Unit 9/130B Roscommon Court. Balmoral Rd.
 *김순희, 이경자 집사. 태훈(1선, 8구역)
 ☎846-8237 15-697 New North Rd. Mt Albert
 *최충일, 김수정 성도. 지만(4선, 10구역)
 ☎520-7131 5/9 MacMurray Rd. Remuera
2. 이태한 목사 부임: 청년1부와 성경공부 담당.
 *가족: 이상미 사모. 예찬. 예은 ☎838-1363 1Pittville Pl. Henderson Heights
3. 향촌직분자 세미나 <일시&장소: 23일(금)저녁 7시. 교회>
4. 오늘은 식사친교주일.
 *콩나물 국밥에 직접 담근 깍두기가 전부일 뿐인데도 의자도 없이 서서 드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순수함에 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준비에 수고하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5. 아동부 예배실 변경
 *Hall 공사기간동안 St David's에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하여 자녀들을 St
 David's 로 부모님께서 직접 데려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Hall 공사로 인한 목회자 사무실 마련, 집기보관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착한 시인들▶ 오늘의 커피 맛
 용혜원

"오늘
 커피맛
 정말 기가 막히데
 누구 솜씨야
 역시 다르군 달라"

같은 커피를
 타는데도 맛이 다르다
 커피를 타면서
 사랑을 듬뿍
 넣었나 보다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 맛이 아닌가
 같은 삶인데도
 맛깔나게
 살아가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모두 다
 른 것보다 그 많은 사람들 살아
 가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게 신
 기합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
 람, 타인 어깨에 기대며 사는 사
 람, 혼자 태양 바라보며 곳곳이
 사는 사람, 바람 일으키며 남의
 눈 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엇
 보다 힘겨운 사람 부축하며 살아
 가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살
 맛 납니다. 어둔 밤하늘 전체가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구름사이로 힘겹게 비쳐지는 별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한
 개의 별들이 된다면 세상은 별
 빛들의 시선으로 아름다워 질 것
 입니다.